

통합을 지향하는 중국계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양상과 의미화 방식에 대한 고찰*

김정희**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계 결혼이주여성 35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이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문화적응 양상의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계 결혼이주여성은 주로 ‘동화’ 또는 ‘통합’을 지향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 가운데 특히 ‘통합’이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화 방식과 전략을 살폈다.

이를 통해 중국계 결혼이주여성 A는 1)삶의 여러 국면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고난을 ‘극복 가능한 고난’으로 의미화하고, 2)실현 가능한 일을 통해 행복감을 얻으며, 3)스스로를 ‘선한 인간’으로 규정하며 이를 위해 나아가는 길을 가치롭게 여기는 인식적 특성을 보였다.

또한 중국계 결혼이주여성 B는 1)자신에게 상대의 그 어떤 비난 또는 폄하로도 훼손되지 않는 가치가 있다고 의미화하고, 2)갈등이 발생해도 상대에게 자신의 신념에 대해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3)스스로 주위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의 이와 같은 의미화와 행동 방식이 문화적응 과정에서 통합을 지향하는 전략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중국계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 문화적응 전략, 통합, 의미화 방식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4055802).

** 인하대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Inha Univ. The Convergence Institute for Asian Multicultural Studies)

접수일(2018년 11월 15일), 수정일(2018년 12월 15일), 게재 확정일(2018년 12월 17일)

I. 서론

교통 통신의 발달, 자국의 정세 변화, 국가 간 교류의 증진 등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현상은 이미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두드러지는 특징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국가가 송출국이 되고, 그에 비해 여건이 나은 국가가 유입국이 되는 것이다.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신변과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러한 이동에서도 경제적 여건은 이주할 국가를 찾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거듭하며 과거에 비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회 제반 시설 등의 상황이 호전되며 경제적 여건이 좋은 국가 중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과거 한 때에는 외국으로 입양되는 전쟁고아, 외화벌이를 위해 떠나는 노동자 등으로 인해 인구가 국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송출국이었으나 최근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인구 유입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유입국이 되었다. 이는 우리에게 송출국일 때와는 다른 사회적 변화를 예견하게 한다. 길거리를 오가면서, 또는 학교나 일터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한국인과는 다른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마주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에 체류 외국인이 많아진 데 따른 사회 현상은 이미 여러 지표를 통해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¹⁾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의 인권 관련 뉴스도 최근 들어 자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표면상으로는 이러한 이슈에서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렇게 하기 위해 침해당하는 자국민의 안전과 이익 보장을

1) OECD 2017년 국제이주전망(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을 보면 2015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장기체류 외국인 수는 14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한다. 이는 2015년 인구총조사를 기반한 수치이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8.08.27. (<http://www.kostat.go.kr>, 검색일자:2018.10.23.)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체류 외국인 비율은 국제 정세나 국가 정책 등의 영향을 받아 변동폭이 조정되므로 검색 시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진다. 본고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최근 조사인 2015년 조사 자료를 참고하였다.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를 보면 다수의 한국인은 더 많은 외국인을 수용하는 데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수가 ‘지금 수준이어야 한다(52.1%)’고 보는 의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데, 이를 약간 혹은 많이 줄어야 한다는 의견과 합하면 82.2%에 육박한다(여성가족부, 2015년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결과보고서).²⁾ 여기에는 경제적 빈곤 국가에 대한 한국인의 고질적인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다수가 경제적 빈곤 국가에서 왔으며, 이들의 사회·문화적 인식이 한국에 비해 뒤떨어져 한국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없다. 가난함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태도가 외국인 범죄 관련 뉴스나 풍문으로 인해 강화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인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다문화 구성원과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화합과 상생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다문화 구성원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생활영역 전반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주민의 삶을 그들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로 듣기 위해 직접 면담하는 심층 인터뷰의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구성원을 이주 유형에 따라 결혼이주여성, 노동자, 유학생으로 분류하고, 각각 어떤 공간에서 생활하고, 어떤 인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 등의 문제를 생활영역별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재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는 중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온 이주민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중국계 결혼이주여성 35명, 노동자 15명, 유학생 15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2) 여성가족부, 『2015년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분석』, 2016, 221쪽

본고에서는 중국계 결혼이주여성 35명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과정과 의미화 방식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민족 국가이다. 그리고 출신 민족에 따라 문화가 다르고 그에 따라 생활상, 가치관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출신 민족을 주요 정보로 구분하였다. 인터뷰가 이루어진 결혼이주여성을 출신 민족에 따라 구분하면 조선족 출신 12명, 한족 출신 22명, 몽골족 출신 1명이다. 그런데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는 중국 정부의 선전 구호와 소수민족 정책은 구성원이 확고한 국가 정체성을 갖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개인이 세계 패권 국가로서 중국에 대해 가지는 자부심이 결부되어 이는 구성원들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계 구성원들은 국가 정체성이 민족 정체성에 우선한다고 여긴다. 즉 민족 정체성도 중국의 일부라는 인식의 하위 범주이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³⁾ 다만 이주민 생활세계 연구가 한국어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조선족 출신인 경우 연구자와 더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하다는 차이는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자신이 경험한 것 가운데 어떤 경험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가에 더 비중을 두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생활과 삶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면 표현이 다소 어색하더라도 연구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언어 능력은 개인 차이가 있는 것이기도 해서 어떤 한족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어느 조선족 출신보다 더 풍부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한 경험에서 파악해야 하는 핵심 요소는 1)계속성과 시간성, 2)상호작용성과 사회성, 3)상황과 장소이다.⁴⁾ 이는 우리의

3) 중국계 노동자의 경우 한국에서 재외동포로 인정되는가의 여부는 체류 자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향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4) 홍영숙,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이해」,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제3권, 한국내러티브교육학회, 2015, 12-13쪽.

경험이 시간의 연속선상에 놓이며, 자기 자신(내재적 조건)과 관계 맺는 대상 또는 상대(외재적 조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 된다고 보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있는지, 또 자신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살펴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문화적응 양상과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⁵⁾ 이는 주제에 의해 이야기된 생애담이 실제 경험을 기억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문학적 특성을 내포하게 된다고 보는 선행 연구⁶⁾에

-
- 5) 선행연구에서도 중국계 결혼이주여성의 생애담에 나타나는 문화적응과 정체성 협상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이해영, 「한국 이주 경험을 통해 본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정체성 변화」, 『여성학논집』 제22권 제2호,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05, 107-143쪽; 최금혜, 「고학력 조선족 국제결혼 여성들의 한국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재외한인연구』 제22권, 재외한인학회, 2010, 139-173쪽; 우명숙·이나영, 「조선족 기혼여성의 초국적 이주와 생애과정 변동」, 『한국사회학』, 제47권 제5호, 한국사회학회, 2013, 139-169쪽; 김영순·임지혜·정경희·박봉수, 「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유대관계에 나타난 정체성 협상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10권 제3호, 한국언론학회, 2014, 36-94쪽; 김순남, 「이주여성들의 결혼, 이혼의 과정을 통해서 본 삶의 불확실성과 생애지도의 재구성」, 『한국여성학』 제30권 제4호, 한국여성학회지, 2014, 189-231쪽; 박미숙·김영순·홍유나,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 요구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제24권 제2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14, 269-302쪽; 전은희, 「고학력 결혼이주여성들의 구직활동과 취업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평생교육학회, 2014, 1-35쪽; 석영미·이병준, 「결혼이주여성 원어민 강사의 생애사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제9권 제2호,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16, 147-171쪽; 두문영, 조진경, 「중국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관한 생애사 연구」, 『여성학연구』 제27권 제1호, 부산대 여성연구소, 2017, 109-141쪽 등.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중국계 결혼이주여성이 문화적응 과정에서 어떤 난관에 봉착하고 어떻게 극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드러났다.
- 6) 신동훈, 「경험담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고찰」, 『구비문학연구』 제4권, 한국구비문학회, 1997, 157-182쪽; 천혜숙, 「여성생애담의 구술사래와 그 의미분석」, 『구비문학연구』 제4권, 한국구비문학회, 1997, 71-87쪽; 김정경, 「여성생애담의 자기생애 의미화 방식 연구 -자리매김과 자기반성적 언술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1권,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291-318쪽; 최원오, 「여성생애담의 이야기화 과정, 그 가능성과 한계」, 『구비문학연구』 제32권, 한국구비문학회, 2011, 37-72쪽; 김경섭, 「여성생애담으로서 시집살이담의 의의와 구연 양상」, 『겨레어문학』 제48권, 겨레어문학회, 2012, 5-35쪽; 김정경, 「여성생애담에 나타난 이주와 정주의 양상과 그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41권, 한국구비문학회, 2015, 5-33쪽.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생애담이 가진 문학적 특성과 의미에 대해 고찰된 바 있다.

힘입은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이야기화하고 있으며 그에 어떤 인지적 특성이 반영되어 문화적응과 전략의 방식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한국 정착과정에서 중국계 결혼이주여성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문화적응 양상에 대해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사건이 있는가, 이는 어떤 사회 제도나 현상 또는 인간 관계와 관련되는가, 그로 인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 등을 밝히고자 한다. 3장에서는 문화적응 양상 가운데 특히 통합을 지향하는 연구 참여자의 의미화 방식과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화적응 과정에 대한 반응과 인식의 차이가 어떤 삶의 경로를 구성하도록 하는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결혼이주여성의 정착과정을 통해 본 문화적응 양상

한국에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은 ‘한국 남성과의 결혼’과 ‘한국으로의 이주’라는 두 결정적 사건으로 인해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 두 사건은 경우에 따라 선후 관계가 바뀌기도 하고, 시간차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기별로 경험하는 공통의 사건과 관심 주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1) 학교 졸업과 직장 생활, 2) 한국 남성과의 결혼과 한국에서의 정착(또는 한국에서의 정착과 한국 남성과의 결혼), 3) 남편(시댁)과의 일상생활 및 출산과 자녀의 양육, 4) 교육기관을 통한 자녀 교육과 대외활동이라 할 수 있다.

우선 1) 학교 졸업과 직장 생활은 다른 경험과 마찬가지로 그 세부적 내용에서는 개인차가 있지만 초, 중, 고등학교 기본 교육을 마치고 취업을 하거나 대학교로 진학하는 등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라는 점은 공통적

이다. 이 시기의 과업과 관심사는 부모를 떠나 어떻게 자립하여 살아갈 것인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홀로 자립하는 시기는 배우자를 맞아 자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전에 잠시 머무는 시기로 보다 안정적인 삶의 추구를 위해 벗어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결혼이주여성은 지인의 소개를 받거나, 직장 동료와 연애를 하거나,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한국 남성을 만나 결혼하며 다음 시기로 진입한다. 한국 남성과 만나기 전에 한국 남성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부분은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우연히 만난 한국 남성에 끌리기도 하고, 한국 남성을 만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한다. 그 방법은 개인차가 있으나 결혼해서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삶을 살아 나갈지에 대해서는 주체적으로 의사 결정을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 한국 남성과의 결혼과 한국에서의 정착은 그 시기와 순서에 있어 개인차가 나타난다. 결혼하자마자 한국에 터를 잡기도 하고 중국에서 터를 잡고 살다가 한국으로 터를 옮기기도 한다. 조선족의 경우, 다른 민족 출신보다 전에 한국에 입국해서 한국 생활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다른 민족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결혼 후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으나 조선족 출신은 한국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주와 결혼, 이 두 사건은 이처럼 경우에 따라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시간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결혼 후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이 어디에서 일을 하는가, 또는 어디에서 살고자 하는가에 따라 주거지를 결정하게 된다.

3) 남편(시댁)과의 일상생활 및 출산과 자녀의 양육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으로 이주 후 정착 초기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탐색과 조정이 이루어진다. 연애 기간이 있거나 결혼하고 중국에서 함께 지낸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남성은 한국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알게 된 남편에 대해 알아가야 하는 기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삶의 공간으로서 한국을 체험하며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한다.

이 시기에 조선족은 다른 민족 출신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한족은 한국어에 익숙해지기까지 남편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꼽는 데 비해 조선족은 이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남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출신 민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국어를 새롭게 익혀야 한다는 부담감 역시 마찬가지이다. 조선족은 한국인처럼 한국어를 구사하기 위해 억양과 어휘를 새롭게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선족에 대한 한국인의 차별과 배제의 태도 때문에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한족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이 시기에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과의 동질성 획득을 과업으로 삼는다. 남편과 한국 사회로부터 한국 문화를 수용하고 체득해야 한국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는 요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은 이와 맞물려 정신없이 돌아간다. 그리고 여느 한국 여성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에 맡길 수 있을 때까지 홀로 육아를 감당한다. 이 시기에 결혼이주여성은 아내로서도, 어머니로서도, 한국의 요구와 기대하는 바를 수용하고 감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4) 교육기관을 통한 자녀 교육과 대외활동의 시기로 진입하면 결혼이주여성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다. 자녀가 교육기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확보되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로 무게 중심을 옮겨올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할 수 있는지 찾아 나선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주민센터, 결혼이주여성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집 밖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게 된다.

또 자녀 교육이 이슈가 되면서 가족 내에서 어머니로서 자기 영역을 확보하게 된다. 자녀에게 아버지보다 가까이 있으면서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지 결정하는 역할을 주도해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남편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정착과정에서 반드시 시도되고 성취되는 일 중에 하나가 스스로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은 남편의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또는 남편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1)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2)심리적 고립감을 이기기 위해, 3) 대인 관계를 맺기 위해, 4)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5)자신감 회복을 위해 집 밖으로 나선다. 남편에게 의존하였던 시기를 지나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말을 할 때 가장 큰 비중을 두는 부분은 3) 남편(시댁)과의 일상생활 및 출산과 자녀의 양육과 4) 교육기관을 통한 자녀 교육과 대외활동이다. 이에 비해 1) 학교 졸업과 직장 생활과 2) 한국 남성과의 결혼과 한국에서의 정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한국으로 이주한 후부터는 이야깃거리를 풍부하게 구술한다.

결혼이주여성이 3)과 4)의 시기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삶의 과업과 그에 대해 취하는 태도에서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단 이주 초기는 자기 나름의 판단과 행동을 하기 전에 정착지의 문화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자신의 것을 내세우기 전에 언어, 지식, 관습, 가치체계 등을 배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잘 아는 상태로 변화하기 위해 수용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이때의 침묵은 다른 문화를 학습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시기와 겹쳐지는데, 이는 큰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조심성을 갖게 한다.

출산 후 한동안 부모의 돌봄이 전적으로 필요한 영유아기의 자녀를 양육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가 자녀가 가정을 벗어나 사회적 교육을 받을 시기가 되면서 결혼이주여성도 비로소 가정을 벗어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면서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대해 각성하게 된다. 자신이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하고 싶은지 찾아나설 수 있게 되면서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태도를 견지하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진다.

남편과의 다툼과 화해는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통과 의례가 된다. 남편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단계를 지나 자신의 의견이 그와 다를 때는 적극적으로 드러내 조정을 시도하는 시기에 이르는 것이다.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행동의 변화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행동 변화와 관련된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문화를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시기를 지나며 수용 가능한 부분과 상호 충돌을 일으켜 조정해야 하는 부분을 분별하고 선택한다. 또한 이러한 조정을 위한 노력이 이후 어떤 깨달음으로 이어지는지가 행동 방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은 결혼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삶의 과업과 겹쳐진다. 이처럼 여성이 배우자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등 사건은 시간의 연속선상에 펼쳐지며 여기에는 가족 구성원 또는 대사회적인 구성원과의 관계 맺기 방식이 어떠한가 등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Berry는 이주로 인해 한 사회에 여러 문화를 가진 구성원이 공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새롭게 접촉한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접촉 시기(contact period), 갈등 시기(conflict period), 해결 시기(resolution period)로 구분한다. 그리고 해결의 시기에 원래 가지고 있던 문화와 정체성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유지하는가, 또 새롭게 접촉한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와 방식은 어떠한가에 따라 통합(integration), 동화(accultur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의 네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한다.⁷⁾

7) Berry의 문화적응 이론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검토되고 있다. 그 가운데 두문영, 조진경, 「중국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관한 생애사 연구」, 『여성학연구』 제 27권 제1호, 부산대 여성연구소, 2017, 115-116쪽에서는 Berry의 문화적응 이론에서 두 개의 기준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 네 가지 양상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통합은 “원 문화의 정체성 및 특성유지”와 “주류사회의 관계유지”가 모두 강하게 나타나고, 동화는 “원 문화의 정체성 및 특성유지”는 약하나 “주류사회의 관계유지”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에 비해 분리는 “원 문화의 정체성 및 특성유지”는 강하나 “주류사

본 연구를 통해 인터뷰한 중국계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Berry가 주장하는 문화적응의 양상에서 ‘동화’ 또는 ‘통합’을 지향하는 성향을 보였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분리나 주변화의 특성이 일부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머니로서 자녀를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키우려는 의지, 또 자신의 경제활동을 위한 노력 등에서 한국 사회와 관계를 맺고 대외활동을 하려는 시도 등이 꾸준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중국계 결혼이주여성에게서 나타나는 ‘동화’ 또는 ‘통합’의 특성은, 첫째, 출신 국가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녀에게 출신 국가의 언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이처럼 중국계 결혼이주여성은 자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출신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둘째, 한국을 자신의 삶이 계속되고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경제적 자립을 시도한다. 셋째, 꾸준한 대외활동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획득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통해 중국계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중적 정체성을 건강하게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장에서는 특히 ‘통합’에 대한 지향이 나타나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사례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의미화하는 방식을 통해 어떠한 문화전응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문화를 수용하고 그 문화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모두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주체성을 확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과 행동의 특성이 무엇인지 밝힐 것이다.

회의 관계유지”가 약하고, 주변화는 “원 문화의 정체성 및 특성유지”와 “주류사회의 관계유지” 모두가 약하게 나타난다. (두문영, 조진경, 위의 글, 116쪽 표 참고, Berry, J. W, Kim, U, Minde, T. and Mok, D.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21, No.3, SAGE Publications, 1987, pp.491-511; Berry, J. W., ‘Immigration, cultur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46, No.1., Wiley 1997, pp.5-68. 참고.)

III. 사례에 나타난 통합의 의미화 방식과 전략

본고에서는 문화적응에서 통합을 지향하는 사례로 조선족 출신 결혼이주여성 1명과 한족 출신 결혼이주여성 1명의 생애담을 분석하고자 한다.⁸⁾

우선 조선족 출신 결혼이주여성 A의 사례를 크게 4개의 주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결혼 전, 학교 졸업과 직장 생활 : 조선족 결혼이주여성 A는 중국 하얼빈 지역 출신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중국에서 무역회사를 다녔다. A는 무역회사 일로 한국에 출장을 왔다가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되어 3년 후인 2004년에 산업연수생 체류 자격(H-2 비자)으로 다시 한국에 왔다.⁹⁾ 그리고 한국 무역회사에서 일을 했다.
- (2) 한국 남성과의 결혼과 한국에서의 정착 :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아는 언니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남편의 착한 성품이 좋아서 결혼했다. 시부모님이 중국 여자는 애를 낳고 도망간다고 하며 결혼을 반대하여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다. 2005년에 딸을 출산했는데, 지방에 사는 시부모님이 올라와서 보고 딸이라고 실망하여 돌아갔다. 시댁과는 내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 (3) 남편(시댁)과의 일상생활 및 출산과 자녀의 양육 : 남편이 친구의 꼬임에 빠져 도박을 시작하면서 결혼생활이 힘들어졌다. 남편은 돈 문제로 자주 폭력을 행사했고 그 정도는 점점 심해졌다. 딸이 다섯 살 무렵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의 문제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8) 이와 같은 조선족과 한족 등의 구분은 중국의 민족 구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국에서는 조선족에 대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또는 거주한 동포로 보고자 한다. 그런데 조선족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 대한 이중 정체성을 품고 있는 존재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조선족의 인터뷰를 보면 중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계 결혼이주여성의 민족 구분을 그들의 모국에서의 기준, 즉 중국에서의 기준에 따르고자 한다.

9) 조선족의 경우 동포 비자(F-4)를 받아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합법적인 구직 및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다. 합법적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산업연수생 비자(H-2)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혼하는 데까지 2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 (4) 교육기관을 통한 자녀 교육과 대외활동 : A는 남편과 갈등을 겪으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했다. 중국에서 친정 어머니가 와서 어린 딸을 돌봐주셔서 가능했다. 아버지의 폭력을 경험한 딸이 거칠게 행동하고 정신이 불안정하여 7, 8살쯤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 상담은 별 효과가 없었으나 딸은 엄마가 자신을 위해 애쓴다고 생각하며 점점 안정을 되찾았다. 교육비가 비싸서 딸을 학원에 보내지는 못하지만 복지회관이나 다문화센터를 통해 할 수 있는 자녀 교육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내는 편이다. A는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창업 지원을 받아 점포를 낼 계획을 하고 있다.

A는 자발적 선택으로 한국행을 결정했다. 그리고 아는 언니의 소개로 착한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비록 시부모님이 A가 중국 사람이라는 것도, 딸을 낳았다는 것도 싫어해서 사이는 좋지 않았으나 남편과 갈등을 겪기 전까지는 이혼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며 시부모님과 갈등이 결혼 생활을 어렵게 한 결정적 이유는 아니라고 한다.

남편과의 갈등은 남편이 도박을 하면서 시작됐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던 남편은 친구들이 잘해주면서 돈을 조금 따게 해주자 점점 도박으로 빠져들었다. A는 도박 그 자체보다 뒤이어 오는 외도와 폭력이 힘들었다고 한다. 남편은 A가 없는 줄 알고 다른 여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기도 했고, 돈을 달라고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기 일쑤였다. A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 돈을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면서 다 빼앗기는 상황을 겪으며 문득 “이러면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결심했다. 그리고 남편의 폭력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한다.

A는 이혼을 위해 남편에게 같이 살던 집의 보증금도 다 주겠다는 서류를 작성해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에게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이사를 했다. A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도 다문화센터에서 늦은 시간에 들을 수 있

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신청해서 들었다. 그래서 운전면허나 각종 자격증을 취득했다. 한부모 코디네이터 자격증도 그 중 하나인데, 자신처럼 자녀를 두고 이혼한 경험을 하는 여자들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취득했다.

A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며 “남자 탓만 하면 못 일어나.”, “스스로 내가 요즘 세상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면은 그냥 살 수 있어... 난 힘들어서 이런 힘든 일을 못하고 저런 힘든 일을 못하고 이런 거.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 근데 내가 나는 그런 거야 물론 이렇게 다리 부러지고 어디 아프지 않은 이상 내가 정신력인거야.” 라고 생각한다. A는 자신이 한국에서 모진 사람들과 가족으로 살았지만 그에 대한 원망보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극복해왔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는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과 그로 말미암은 행동력과 추진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A는 필요한 것이 있거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면 고민하기보다 해결 방법을 찾아나선다. 이혼 상담을 받을 때도, 딸에게 상담이 필요할 때도, 딸을 교육시켜야 하는데 돈이 없을 때도 이러한 행동 방식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정리하면, A는 자신의 경험을 극복 가능한 고난으로 의미화하고, 이를 극복의 추동력으로 삼는다. 때로는 딱 들어맞는 해결책을 주위에서 구할 수 없을 때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체 가능한 대안을 찾고 그에 만족한다. 이러한 현실 가능한 만족 추구가 A의 삶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일단 나를 키워야지 좋은 사람으로 키워야지. 그래야 좋은 사람 만나지.”라는 언술을 통해 스스로를 선을 목표로 하며 성장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선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인다고 여기며 사람에 대한 신뢰를 드러낸다.

다음은 한족 출신 결혼이주여성 B의 사례를 크게 4개의 주제로 정리한 것이다.

- (1) 결혼 전, 학교 졸업과 직장 생활 : B는 한족 출신으로 중국 호남성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회사생활을 한 경험이 있으나 그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 (2) 한국 남성과의 결혼과 한국에서의 정착 : 22세였던 2007년에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사업을 하는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남편과는 18살 차이로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되었다.
- (3) 남편(시댁)과의 일상생활 및 출산과 자녀의 양육 : 시어머니는 지방에서 넓은 땅을 소유한 유지로, 소유지에 절을 짓도록 할 정도로 독실한 불교 신자이다. 그러나 B에게 불교를 믿을 것을 강요하거나 하지는 않아 특별한 갈등은 없다. 결혼하자마자 임신하여 낳은 아들은 11세이고, 둘째인 딸은 9세이다. 남편이 TV에서 조선족을 희화화하는 프로그램을 보며 ‘중국 사람’이 ‘중국 여자’가 하는 등 비하하는 표현을 써서 다투기도 했다. B는 남편이 중국어를 할 줄 알아서 남편과 대화할 때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반반씩 사용하지만, 결혼 초기에는 남편과 제대로 대화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 (4) 교육기관을 통한 자녀 교육과 대외활동 : B는 아들과 딸을 모두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남편과 자녀 교육에 대해 대화해야 할 필요가 생겼으나 대화가 잘 안 통해서 답답하다고 한다. B는 자녀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싶은데 어릴 때부터 중국어를 가르치지 못해서 후회하고 있다. 지금은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하긴 하지만 중국어를 할 때만큼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지는 못해서 중국어가 서툰 자녀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B는 가정주부이지만 같은 동네 노인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한국어 공부를 위해 교회에 나가기도 한다. 시간이 날 때는 중국인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B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만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외국 문화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B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경험 가운데 특별히 함께 TV 프로그램을 보고 난 후 나는 대화와 관련한 기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는 남편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드러난 하나의 예이다. B는 한국 사람들에게, 또 남편에게 외국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남편은 중국인 아내가 자녀 교육에 대해 하는 말도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그래서 B는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한국 남자와 결혼하려는 외국인 여성이 있다면 결혼하지 말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다고 한다. 표면상으로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보이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남편에게 아내로서 존중받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B는 자신을 특별한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B는 자신이 활발한 성격이라 “나도 이렇게 밖에 나가는 거 다 도와주고 하는 거 좋아하니까”라고 하며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부터 지역 노인들을 도와 봉사활동을 했고 이는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또 여가로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골프를 하러 다니는데, 이는 생활에 활력을 주는 재미있는 경험이다.

B는 “잘 못 사는 친구 사실 더 좀 어렵죠.”라고 하며 자신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처럼 B가 생계에 쫓겨 생활전선에 나서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경제력이 있는 남편 덕분이다. B는 물질적 풍요를 위해 정신적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거둬들 상대에게 시정을 요구하며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모국의 문화와 그를 계승한 자신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다. 이를 위해 자국 문화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이는 외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리하면 B는 “저는 가르쳐줘요. 중국이 얼마나 큰지. 중국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라고 하며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의미화한다. 그러면서 넓은 시야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편협하게 세계를 바라보고 보수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며 세계를 균형 있

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이처럼 B의 전략은 언어나 문화는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데 이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배타적인 태도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이는 잘못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 A와 B는 모두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나가는 나름의 방법을 고안하고 있어 ‘통합’을 지향하는 문화적응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통합에 이르는 방법과 태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통합을 지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IV. 결 론

모국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것이 중국계 이주민의 대표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자녀에게 중국어를 가르쳤는가, 지금까지는 한국에서의 적응을 위해 못 가르쳤으나 지금부터라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자녀를 둔 중국계 결혼이주여성 공통의 화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생산적 활동, 즉 경제활동은 한정적인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중언어 코칭, 의료 코디네이터, 은행에서의 통역, 공장의 생산직 등이다. 자부심은 높는데 이는 한국에서 생산적인 가치를 창출해내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인터뷰를 반가워하고 고마움을 표현한다. 이미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이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방인으로서의 외로움이 근원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활세계를 알고자 하는 시도만으로도 그들에게 심리

적 위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중국계 이주민이 문화적응에서 통합을 지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다른 국가에서 온 이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의 과정과 양상을 연구하여 이러한 특징이 중국계 이주민의 문화적응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요인인지 비교 분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중국계 결혼 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첫째,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가지며 자신이 자녀에게 엄마로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둘째,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등의 특징도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도 출신 국가의 문화나 정서가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친다면 어떤 기제로 작용하는지 등을 살펴 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곽금주,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 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심리학회, 2008.
- 김정섭, 「여성생애담으로서 시집살이담의 의의와 구연 양상」, 『겨레어문학』 제48권, 겨레어문학회, 2012.
- 김영순·임지혜·정경희·박봉수, 「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유대관계에 나타난 정체성 협상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10권 제3호, 한국언론학회, 2014.
- 김정경, 「여성생애담에 나타난 이주와 정주의 양상과 그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41권, 한국구비문학회, 2015.
- 김정경, 「여성생애담의 자기생애 의미화 방식 연구 -자리매김과 자기반성적 언술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1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 두문영·조진경, 「중국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관한 생애사 연구」, 『여성학연구』 제27권 제1호, 부산대 여성연구소, 2017.
- 박미숙·김영순·홍유나,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 요구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제24권 제2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14.
- 석영미·이병준, 「결혼이주여성 원어민 강사의 생애사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제9권 제2호,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16.
- 신동훈, 「경험담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고찰」, 『구비문학연구』 제4권, 한국구비문학회, 1997.
- 여성가족부, 『2015년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분석』, 2016.
- 우명숙·이나영, 「‘조선족’ 기혼여성의 초국적 이주와 생애과정 변동」, 『한국사회학』 제47권 제5호, 한국사회학회, 2013.
- 이혜영, 「한국 이주 경험을 통해 본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정체성 변화」,

- 『여성학논집』 제22권 제2호,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05.
- 전은희, 「고학력 결혼이주여성들의 구직활동과 취업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평생교육학회, 2014.
- 천혜숙, 「여성생애담의 구술사례와 그 의미분석」, 『구비문학연구』 제4권,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 최금혜,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결혼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제72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최원오, 「여성생애담의 이야기화 과정, 그 가능성과 한계」, 『구비문학연구』 제32권, 한국구비문학학회, 2011.
- 홍영숙,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이해」,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제3권, 한국 내러티브교육학회, 2015.
- Berry, J. W.,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Amado M Padilla,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some new findings*, Westview Press, 1983.
- Berry, J. W, Kim, U. Minde, T. and Mok, D.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21, No.3. SAGE Publications, 1987.
- Berry, J. W., 'Immigration, culture,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46, No.1., Wiley 1997.
-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7*, OECD Publishing: Paris, 2017.
- 통계청, 2017년 인구총조사, <http://www.kostat.go.kr>(검색일자: 2018. 10.23.)

〈ABSTRACT〉

A Study on the Cultural Adaptation Pattern and the Semantics of Chinese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for Integration

Kim, JeongHee

This paper interviewed 35 Chinese marriage immigrant women living in Korea and in order to understand the tendency of general adaptation patterns in Korea. Through this, Chinese marriage migrant women mainly said that they aimed at 'assimilation' or 'integration'. Integration, especially, has been a positive effect on their life. As in this perspective, examined the semantic way and strategies that enable 'integration'.

The cognitive semantics of the Chinese marriage migrant woman A can be summarized in three ways. 1) To mean the suffering encountered in various aspects of life as 'suffering that can be overcome', 2) To obtain happiness through feasible work, 3) To define herself as 'good person', and valued the way for it. In the case of Chinese marriage migrant woman B, 1) It means that she has worth not being damaged by any criticism or play down of the opponent, 2) If conflict occurs, do not hesitate to express her beliefs to the opponent, 3) Try to be born again as a helpful person by herself. These semantics and behaviors have significance as a strategy for integration in the cultural adaptation process.

Key Words : Chines Marriage Migrant Women, Cultural adaptation, Strategy for cultural adaptation, Integration, Semantics